

러시아서 귀화 안나씨의 월드컵 응원가

“韓·러 둘다 우리나라 나란히 16강 갔으면”

광주 거주 15년...한국 국적 헬스 트레이너하며 통역도 “한·러전 친구들과 내기 지인들에 한턱 쏘기로”

“제게는 러시아나 한국이나 모두 우리나라인데, 누굴 응원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냥 이긴 편이 우리 편 할래요(웃음)”

브라질 월드컵 한국-러시아전(18일 오전 7시)을 앞두고 만난 러시아인 안나 블라지미로브나(여·36·사진)는 유쾌했다. 광주에서 15년째 거주 중인 그녀는 광산구 신가동의 한 휘트니스 센터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 16일 오후 헬스장에서 만난 안나는 한 남성 회원과 브라질 월드컵 한국-러시아전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1999년 12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안나는 지난해에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다. 2개의 국가를 하나의 가슴에 품게 된 그녀는 요즘 고민이 깊다. 브라질 월드컵 H조에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다.

헬스 트레이너를 본업으로 하면서 간간히 통역을 맡을 정도로 한국어가 능통한 안나는 한국과 러시아 중 어디를 응원하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전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응원한다”라며 밝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세계대회 1등을 휩쓸던 소련 해체 후 러시아 국민 모두가 힘들어 했는데, 요즘 러시아가 다시 성

장세를 보이면서 이번 월드컵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러시아 국민이 월드컵 승리를 내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응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나는 한국-러시아전의 전망에 대해서는 “러시아 선수들이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2-1 정도의 스코어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물론 러시아와 한국 중 어느 나라가 이겨도 다 기분이 좋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 “한국 친구들과 내기를 했고, 러시아가 지면 여러 명에게 밥을 사면되고, 이기면 밥을 얻어먹으면 된다”며 활짝 웃었다.

안나는 이번 월드컵 응원은 러시아-한국전의 첫 경기가 너무 이른 탓에 집에서 ‘나 홀로’ 응원할 생각이 다. 광주에 5명의 러시아 친구가 있지만, 기혼인데 아이도 있어 아침 응원을 함께 할 수 없어서다. 그녀는 대신 러시아에 있는 오빠(에디·40)와 화상전화를 통해 응원전을 펼치겠다는 소박한 응원계획을 내놴다. 안나는 러시아전의 승패를 떠나 월드컵 이후 광주에 거주하는 러시아 친구들과 모여 월드컵 파티도 준비하고 있다.

그녀는 끝으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러시아와 한국이 조 1, 2위로 나란히 16강에 진출하는 것”이라면서 “이 희망이 현실이 되면 주변의 모든 분들께 한턱 쏘겠다”며 손가락으로 승리를 기원하는 ‘V’를 그렸다.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국회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강기정)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20여명이 지난 13일 몽골 바양항가이솜에서 ‘몽골 나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

흙 바람 몽골 사막에 ‘생명’을 심다

강기정 의원 등 광주 ‘나무심는 사람들’ 나눔 프로젝트

바양항가이솜 인근 초원 2Ha 포플러 나무 300그루 식재

지난 1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00여km가량 떨어진 바양항가이솜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국회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강기정) 소속 국회의원 2명과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20여명이 이곳에서 식목행사를 갖는 등 ‘몽골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회원들이 찾은 조립지역은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 위로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었다. 말과 소, 양, 염소떼만이 등성등성 자라난 풀을 뜯고 있었다. 초원의 한가로운 풍경처럼 보이지만, 비가 자주 오지 않아 건조하고 메마른 땅, 광활한 초원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흙먼지만이 가득했다.

몽골은 아름다운 대초원이 급격한 사막화로 푸르름을 잃은 채 신음하면서 주민

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날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등은 산림청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의 도움으로 바양항가이솜 인근 초원 2ha면적에 시베리안 포플러 1년생 300그루를 심었다. 식목 장소는 바양항가이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됐다. 시도때도 없이 도심으로 불어오는 모래폭풍을 막을 수 있는 숲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주택가에서 2km가량 떨어진 초원 지역에 조립지를 조성했다.

땅이 건조하다보니 나무심는 방식도 우리와 많이 달랐다. 한국에선 나무 밑동까지 흙을 돌리지만, 이곳에선 지표면보다 낮게 심었다. 수분 증발을 막고, 초원의 거센 바람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양의 배설물로 성숙시킨 퇴비도 함께 덮었다. 2인

1조로 나뉘어 진행된 나무심기는 척박한 토양 때문에 정성을 다할 수 밖에 없었다.

행사를 추진한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은 “단순한 나무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막화 방지와 생태복원이 목표”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과 몽골의 미래세대를 위한 희망의 나무를 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바사오 몽골 국회의원은 “사막화 방지는 짧은 시간에 이뤄지지 않겠지만, 양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후손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한국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강기정 의원을 비롯해 박완주 의원 등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의원과 산림청, 환경재단, 열린사회 등이 참여했으며, 롯데백화점이 후원했다. 광주에서는 조호권 전 광주시의회 의장, 정희곤 전 광주시의원, 이춘보 광주시의원, 반재신·임택 광주시의원 당선자, 마광민·심재섭 북구의원 등

광주지역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 20명이 참석했다.

한편, 광주 ‘나무심는 사람들’ 회원들은 최열 대표 등 환경재단 관계자와 함께 손강하이르항구를 방문해 전기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택가에 태양광 전등 200개를 전달했고, 자르갈란트스에서 열린 사회(이사장 고병석)가 진행하는 의료봉사 활동 현장을 찾아 마을 환경개선 작업을 도왔다. /몽골 울란바토르=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한-몽 그린벨트 프로젝트

산림청이 공적원조(ODA)사업으로 몽골에서 진행하는 조립사업. 2007년부터 시작해 오는 2016년까지 10년 동안 진행된다. 몽골 달란자드가드와 룬숨지역에 총 3000ha를 조립할 계획이며 나무심는 사람들은 산림청과 함께 나무심기 사업을 올해로 2년째 진행 중이다.



해남, 네티즌 선정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에

해남군이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에 선정됐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한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 네티즌 투표를 거쳐 해남을 비롯한 전북 무주, 정읍 등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는 21개 지자체가 응모해 5월 9일부터 25일까지 네티즌 투표(60%)와 관광전문가들의 심사(40%)를 거쳐 선정됐다.

그동안 해남 땅끝관광지가 ‘한국의 아

름다운 길’, 한국관광공사 선정 ‘네티즌이 가고 싶어하는 곳’ 1위 등으로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해남군이 최고의 여행지로 인정받은 건 처음이다.

해남군은 땅끝관광지와 우항리 공동화 석자, 대항사 등 관광자원과 닭코스 요리,

한정식 등의 먹거리,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가 산재한 해남이 전국의 네티즌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2014 대한민국 베스트 그곳’에 선정되면 1년 동안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1년간 해남의 주요관광지를 무료로 홍보할 수 있게 된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 합니다.

1566-9988 **수술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점일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남문로 100-10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밝은광주안과**

NAVER *7월 4일~11일* **단비플라워** *농협에서*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품암지점